

제1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 념 사

2019. 11. 28 (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성 수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이자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18주년을 맞는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김영문 관세청장님을 비롯한 법집행기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님과
금융회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금세탁방지 유공자로
표창을 수여받는 분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그 동안의 성과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된 것이
그리 길지 않은 역사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제도인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전수도 대폭 증가하였고, 보고내용도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러한 금융정보를 법집행기관에 분석·제공하여
경제범죄와 조세범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국세 추징세액과 체납액 징수 규모는

연 2조 4천억원과 6,67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고객확인제도, 금융기관 내부통제 등도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금융거래의 투명성, 신뢰성이 확립되고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09년 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2015년에는 FATF 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2016년에는 FATF 부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FATF의 교육연구기구인
FATF TREIN(트레인)을 부산에 유치하여
세계 각국에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과 부산의 위상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향후 과제 및 당부의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자금세탁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응방식도
이에 걸맞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핀테크, 가상자산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주요 각국은
신기술 진화에 대응한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제도정비와 함께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이행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FATF 정회원 가입 이후 처음으로
FATF 상호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우리의 이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번 FATF 상호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사법시스템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회사, 법집행기관, 금융당국,
3자간 신뢰에 기반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술 및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단단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및 P2P 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이행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법집행기관 여러분들께는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융회사 종사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범죄예방은 물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인프라에 해당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

그리고 P2P 금융법 제정 등으로

업무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금세탁방지의 최일선에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IV.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건전한 금융사회를 위한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투명한 금융거래 관행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또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부응하도록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